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 연구

A Study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s 'Adaptation Experiences', With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ir Home Country

이은주(Eun-Joo Lee)¹, 전미경(Mi-Kyung Jun)^{2*}

¹Department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phenomenologically investigate the adaptation experiences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with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ir native country.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seven Vietnamese immigrant women were analyzed by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A. Giorgi(1997). A total of 127 meaning units and 7 themes with 17 sub-themes, which rendered central meanings that indicated situational structures, were derived. The statements of situational structures were re-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ir native country. As the socioeconomic aspect, "aspiration for new opportunities and a new world" and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were derived. The aspect of familial value and culture involved "conflicts over the unilateral acceptance of differences" and "building social relationships". The aspect of female status was associated with "conflicts due to patriarchal hierarchy". The aspect of child caring involved "education as a symbolic value" and the "double-sidedness of mother identity strategy". The gist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s adaptation experiences is "to grow into a subjective mother despite conflicts due to the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behind aspirations".

▲주제어(Key Words)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Vietnamese immigrant women), 적응경험(adaptation experiences), 사회·문화적 맥락(sociocultural context)

I. 서론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특정 종교의 주도로 일본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Statistics Korea, 2014), 1992년 중국과 수교 한 뒤 조선족 여성

과 농촌 남성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였다(E. Lee & M. Jun, 2013).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농어촌 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의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본격화되었고 현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Joongboo Daily, 2014).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혼이민자는 2013년 현재 150,865명이며, 국적은 중국(62,400명), 베트남(39,854명), 일본(12,220명),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Ju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il-dong,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82-2-2260-3889, E-mail: mkjun@dongguk.edu

필리핀(10,383명) 순이다. 중국 결혼이민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조선족(26,274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베트남의 비율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남녀 비율은 각각 22,039명(14.6%), 128,826명(85.3%)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과의 빈번한 접촉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출신국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국가로의 글로벌 상향혼(global hypergamy)을 선택한 여성이 급격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국내 유입 비율은 2000년 77명으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1.1% 수준이었으나, 2013년 30.6%를 차지할 만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한편 결혼이주여성 증가의 이면을 살펴보면 이혼건수가 매년 1만 건 이상으로, 이는 2000년 한 해 1,498건에 불과했던 이혼건수와 비교했을 때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3.2년(2010년 기준)으로, 평균 14년인 한국인 부부와 비교했을 때 무려 10년 이상 짧다. 그러나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해체·재혼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책적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을 출신국별로 살펴볼 때, 특히 베트남 이주여성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6년 총 610건으로 전년 289건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이래 2013년 총 2,057건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중국 이주여성의 이혼율은 2010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13년에는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다(Statistics Korea, 2014). 이는 베트남 여성이 헌신적이고 순종적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와 베트남 문화가 유사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M. Kim, M. Yoo, H. Lee, & K. Chung, 2006) 아래 베트남 여성에 대한 배우자 선호도는 높지만 결혼생활의 성공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전략과 지지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또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에 상업적 중매업체의 적극적 개입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형태와 실태를 살펴보면 65.8% 이상이 속성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중매업체를 통해서 한국 남성을 만났는데, 이는 중국(20.4%), 필리핀(29.6%) 일본(1.0%)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타국가의 결혼이주여성 대비 한국인 남편과 연령차가 매우 크고 부인은 초혼인 반면 남편이 재혼인 경우가 많으며(D. Kim, 2006; K. Chung, 2008),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비율이 71.6%로 높은 편이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결혼이주여성들이 중매업체나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배우자 국가에 대한 탐색기간이 매우

짧은 속성 결혼의 형태로 입국하게 된다. 다시 말해 중매 업체를 통해 결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가치관, 생활방식 등과 매우 상이한 한국사회에 대한 일련의 탐색 및 적응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입국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사회 진입 초기의 경우 실태조사 차원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졌으나 점차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연구로 구체화되고 있다(S. Park, 2011).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응(adaptation)이란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 다른 문화 집단의 접촉을 통해서 가치, 신념, 생활방식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초점은 '적응'의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이라는 실존적 선택과 세계화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국제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다(D. Seo, 2010).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원가족 경험 및 이주를 선택하게 된 환경적 맥락이 상이하며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또한 다르다. 이러한 차이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적응 방안을 수립하고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해결해나가는 대책 및 전략의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지원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의 삶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개별적 국가 상황 및 맥락에 따른 차이가 존중되면서 이해되어야 한다(H. Lee, 2013).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국적이 다른 결혼이주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살펴보았는데(M. Sung, M. Chin, J. Lee, & S. Lee, 2013), 이는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 Chung, 2008). 이러한 관점은 결혼이주여성의 개별적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과한 획일적 대안을 제시하는 오류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원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입 형태 및 실태 차원에서 결혼생활 유지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이는 높은 이혼율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낭만주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행위전략,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치갈등, 문화상호주의적 관점, 결혼과 일에 대한 적응과정 탐색, 생활적응 사례연구(O. Cahe & D. Hong, 2007; J. Choi, 2009; T. Kim, 2013; Y. Shin & J. Chang, 2010; E. Lee, 2013)

등으로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특성에 따른 베트남 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다양한 적응기제를 상황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본질로 기술할 수 있다(M. van Manen, 1990).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적응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즉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경험을 상황적 구조로 살펴보고 다시 일반적 구조로 기술하여, 이들 여성의 개별적이면서 집단적 가치를 지니는 적응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적응경험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문화 적응 지원 및 다문화주의 정책 수립의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적응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문화란 수세대에 걸쳐 이어온 전통적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 행동방식, 신념, 관습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현상 또는 분위기를 말한다(J. Lee, 2011). 한편 문화적응이란 문화동화, 문화집변, 문화변용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문화집단의 접촉을 통해서 가치관, 신념, 생활방식 등을 배우고 적응된 상태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의 문화 양식, 가치, 신념과 상이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사회·문화적 적응을 경험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이주민들은 심리적 문화적응의 전략 차원에서 통합(integration)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순이다(J. W. Berry, U. Kim, S. Power, M. Young, & M. Bujaki, 1989; J. S. Lasry & L. Sayegh, 1992; F. J. R. Van de

Vijver, M. Helms-Lorenz, & M. J. A. Feltzer, 1999; J. P. Van Oudenhoven, G. Willemsma, & K. S. Prins, 1996). 이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주류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주민들은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혼돈, 좌절, 불안과 같은 정신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 Bhugra, 2003; H. Fenta, I. Hyman, & N. Samuel, 2004).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Y. Kang, 1999; J. Sung, 1996)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문화 및 생활방식의 차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기도 한다. 또 경제적 기대에 대한 실망을 경험한다(H. Jin, 2005). 또 양계적 가족 문화를 가진 필리핀,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장남문화, 제사문화,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적응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S. Kong & S. Yang, 2011).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당수가 특정 종교적 신념으로 국제결혼을 하고 있었으며, 문화 충돌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D. Lee, 2009).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 Ok, M. Chin, G. Chung, & J. Kim, 2014). 이 연구의 주요 대상자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부모와의 갈등과 이혼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T. Kim, 2013).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타국가 이주여성보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점(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가족과 친지에 대한 의무 이행 인식이 강하며, 부모에 대한 효와 부양 인식 또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 Hwang, 1999; T. Busseon, 2006). 따라서 시부모 부양으로 인한 단순 갈등보다는 시부모의 가부장적 가치관 강조와 문화적 인식 차이에 의한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부모의 가부장적 남아선호사상과 한국의 복잡한 제례절차 등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 Shin & J. Chang, 2010; E. Lee, 2013). 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외출복과 실내복을 구분하는 한국의 의생활과 하루 2기 정도만 먹는 베트남보다 식사량이 많은 한국 식생활에서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O. Cahe & D. Hong, 200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은데, 사랑 문화가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문화자원이기보다는 출신국의 아내, 어머니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응하게 된다(J. Choi, 2009). 즉 속성국제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인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는 한국 적응을 위한 안전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며, 출신국에서 내면화되어 왔던 여성 또는 모성 정체성이 문화적응을 위한 대체 자원이 되는 것이다. 한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자기 계발 차원의 일은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보람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 Lee, 2013).

정리하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갈등은 크지만 출신국의 여성 정체성과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적응자원으로서 매우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긴 형태의 나라로 북부의 하노이와 하이퐁, 중부의 다낭, 남부의 호치민과 켄터의 5개 직할시로 이루어져 있다. 1975년 공산화 통일되었고 1986년 쇄신의 의미를 가진 도이 머이(Doi Moi)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혁정책으로 인해서 외국 자본 유입이 급증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 해외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Doosan Encyclopedia, 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유입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측면에서 베트남 여성의 한국 유입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2년 베트남과 한국이 수교를 맺고 한국과의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가 시작된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중 가장 먼저 한국 드라마가 소개된 곳으로 1997년 <느낌>이 처음 방영되었고 1998년 <의가형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의 진원지가 되었다(S. Kim, 2012). 2000년대 이후부터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 즉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이 더욱 증폭되었는데, 이 시기는 드라마의 경우 한 주간에 약 7~8편이 집중적으로 방영되기도 하였다(B. Song, 2011). 베트남 여성에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타난 정돈된 생활환경의 한국과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한국 남성의 이미지는 결혼이주 선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한류는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과의 지리적·공간적 거리를 초월한 상상적 교감을 통해서 초국적 이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베트남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연령별 인구 구조가 밑면이 넓은 피라미드 형태로서 산업화·경제화의 인적자본이 될 수 있는 1980년대 전후로 출생한 젊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많다(World Population Review, 2014). 그러나 산업 지역에서 지리적·공간적으로 분리된 낙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에 일자리 선택의 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다. 대부분 10대 후반이 되던 공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집안에서 부모님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본인의 장래를 보장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결정적으로 급증한 시기인 2006년은 한국이 베트남에 총 27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던 시기이다(Statistics Korea, 2014; Doosan Encyclopedia, 2014). 최대 투자국 이미지는 코리안 드림을 더욱 가속화 시켰으며, 발전의 기회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은 고성장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기회의 나라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베트남 여성으로 하여금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하는 주요 동기유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이주여성들은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과 발전할 수 있는 삶의 추구로 인하여 한국을 선택하게 되고 이때 결혼은 중요한 이주 수단이 된다.

3. 베트남의 가족가치관 및 생활문화

길쭉한 지형을 가진 베트남은 지역 별로 인접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가치관과 가정생활문화에 있어 뚜렷한 지역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유교적 가치를 지닌 불교가 베트남의 지배적 종교라는 이유로 베트남의 가족제도나 가족의식에 관한 국내 인식은 중국 또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여기고 있다(O. Cahe & D. Hong, 2007).

베트남의 지역별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면, 중국과 맞닿아 있는 고원지대인 북부는 중국의 영향으로 유교 문화 특성이 강하며 가부장적 부계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부계제에 따른 부권 강화의 특성을 가지지만, 동남아시아 고유의 가족가치관을 가진 베트남 전통의 영향으로 아내와 남편은 비교적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I. Yoo, 1997). 따라서 북부 지역은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차별은 없다(S. Ha, 1994). 노부모 부양관 역시 부계가족적 특징이 있지

만 경제적 여유가 허락하는 한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Kei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2007).

곡창지대인 베트남 남부는 북부와 달리 양계제적 특성을 보인다.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말자(末子) 상속의 원칙을 따른다. 즉 장남부터 재산 분할 분거를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가 노부모를 부양하고 부모가 죽은 뒤 집을 물려받으며, 제사의 의무도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다(S. Ha, 1994). 따라서 남부 출신 여성은 시부모와의 동거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다(Kei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2007).

정리하면 베트남 북부의 양상은 한국의 가족가치관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지만 유교 문화에 의한 표면적 유사성에 불과하며, 베트남 전반의 가족가치관은 베트남 고유의 동남아시아 가치관에 근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유교적 가족주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의 혼인문화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농촌지역의 혼인연령은 여자의 경우 16세 정도가 되면 적당한 수준이라 여기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O. Cahe & D. Hong, 2007). 배우자 선택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에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문과 출신성분을 살펴보았지만 오늘날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학력, 직업 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형태로 변화하였다(H. Kim, 2007).

베트남의 식문화는 밥과 국수인 피(Pho)가 기본 음식이다. 일상적으로 가정음식과 함께 외식문화가 발달하였으며, 골목마다 소규모의 좌판 식당이 즐비하다. 아침식사는 간단하게 먹거나 주로 외식을 하며, 하루 중 저녁식사를 가장 풍성하게 준비한다. 음식이 쉽게 상하는 고온다습한 지방의 특성상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요리를 하고 먹고 남은 음식은 버린다(Doosan Encyclopedia, 2014).

베트남은 공동체 개념이 강한데, 이웃과의 관계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제관계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 이웃은 거주공동체, 생산공동체,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베트남인들은 어디로 이동하던 동향인을 찾고 상대방의 직업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평등한 대인관계를 가진다(N. Kim, 2013). 베트남의 공동체 문화는 명절을 보내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베트남의 큰 명절에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음력 8월 15일의 쯩투(Trung Thu)와 음력설인 텃(Tet)이 있다. 쯩투에는 멀리 살고 있는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는다. 음력설인 텃은 베트

남 최대의 명절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텃에도 쯩투처럼 가족 이외의 주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는다(Y. Kang, 2011).

4. 베트남의 여성지위와 어머니 역할

베트남의 지역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베트남 여성의 지위는 비교적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와 달리 동남아시아 국가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여성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또 역사적으로 중국에게 천년 지배를 받을 당시 한나라에 항거해 혁명을 시도한 '바찌에우(Ba Trieu)', 독립 국가를 세운 '하이 바 쯩(Hai Ba Trung)' 자매 등과 같이 베트남에는 유명한 여성 호걸이 많으며, 현재 이들의 이름이 베트남 거리명칭으로 사용될 만큼 추앙받고 있다(S. Sim, 2009). 또 베트남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호치민의 남녀평등에 기초를 둔 여성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베트남 여성은 날씨가 춥다할지라도 집에 있지 않고 나가서 촌락의 물을 거정한다", "적이 오면 여자도 나가 싸운다"라는 베트남의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촌락 공동체에 대한 여성의 사회적 책임을 엿볼 수 있다(S. Sim, 2009; Y. Choi, 2010).

한편 베트남의 가족문화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할지라도 여성존중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T. Busseon, 2006). 즉 여성 존중 측면이 강한 가부장적 특성을 가진 것이 베트남 가족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J. Ryu, 2010). 여성은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며, 배우자가 있음에도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가 될 수 있다(S. Sim, 2009). 또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든 가게 경제는 여성에게 일임되고 있다(O. Cahe & D. Hong, 2007; N. Kim, 2013). 같은 맥락에서 남자가 가정의 모든 돈을 관리하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사회적 관념이 존재한다(S. Sim, 2009). 다시 말해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집안 대소사의 결정자 역할 및 가게 경제의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주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베트남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가 버릇이 없으면 어머니의 책임이고 손자녀가 버릇이 없으면 할머니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관념이 존재한다(S. Sim, 2009). 또 '자식을 성공시키는 어머니'라는 그들만의 행위전략이 존재한다(J. Choi, 2009).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력은 이주 초기에 경험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과 사회 적응에 따른 여건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를 통해서 삶의 수준이나

계층적 여건이 상승 이동했다고 인식하는 여성보다 결혼 이주를 했지만 자신의 상황이 출신국에서 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인식하는 경우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높다(J. Ryu & D. Kim, 2013).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대부분 출산 지연보다는 이주 초기 즉 문화 적응 시기에 자녀를 임신·출산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적응 초기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은 정보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됨'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나 '어머니됨'의 빠른 선택이라는 행위전략을 이들의 집단적 신념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에게 자녀 양육을 통한 어머니됨은 '자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다. 연구참여자의 지리적 범위를 제

한한 이유는 과거와 현재 삶의 맥락 및 경험적 현상의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참여자 표집방법은 수도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를 통해서 일차적인 소개를 받았고, 다시 연구참여자로부터 주변인을 소개받는 형식인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총 7명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현상을 경험하는 연구참여자가 5명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H. Cho, S. Jeoung, J. Kim, & J. Kwon, 2007).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주 년차가 5년 이상으로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적으며, 연구자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교류경험 진술을 위해 자녀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등원할 수 있는 연령대이어야 한다. 셋째, 현 배우자의 만남이 지인이나 중개업을 통한 결혼 형태이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참여자 A는 사별녀로 부부관계는 다른 이주여성보다 상이하지만 원가족 경험 및 한국에서의 적응경험이 다른 연구참여자보다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Table 1. Demographics of Subjects

No. (native place)	Age		Residence in Korea	Marital status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years old)	Immigrant women's job	Husbands' job
	Immi- grant women	Husb- ands		Immigrant women	Husbands	Immigrant women	Husbands			
A (S)	29	Died in 2012 (46)	9	First	Second	High school	.	2(died, 6)	Translator	.
B (S)	30	57	9	First	Second	High school	Middle school	2(8, 4)	Housewife	Car mechanic
C (N)	34	51	9	First	First	High school	High school	2(8, 5)	Sideline	Carpenter
D (N)	31	46	7	First	First	High school	College	2(6, 5)	Sideline	Carpenter
E (N)	29	42	8	First	First	High school	High school	1(8)	Office clerk	Bus driver
F (N)	26	50	7	First	First	High school	High school	1(6)	Housewife	Truck driver
G (S)	31	41	9	First	First	Middle school	High school	1(9)	Helping husband	Self- employed

N=Northern Region , S=Southern Region

2. 자료수집 및 분석

1)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지식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J. Mason, 199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내부자적 관점(emic view)에서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 van Manen, 1990).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1-2회에 걸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으로 수집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정량화된 구조적 면접과 달리 상황적 융통성을 고려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여러 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질문을 누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Y. Kim, 2007).

한 개인이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 다른 국가의 주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집단차원과 개인차원의 영향을 받기에(J. W. Berry & D. L. Sam, 1997), 심층면접의 내용은 집단차원과 개인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집단차원은 출신사회, 정착사회, 집단 문화적응의 요소를 포함하고 개인차원에는 문화적응 이전의 조절요소와 문화적응 과정의 조절요소가 포함된다.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차원의 출신사회 요소는 언어, 종교, 가치 등의 민족지학적 특성, 정치·경제적 상황,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가 포함된다. 집단 문화적응 요소는 문화에 적응하는 그룹의 변화를 의미하며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요소가 포함된다. 개인차원의 문화적응 이전의 조절요소는 인구학적, 문화적, 경제적, 개인적, 이주 동기 등의 변수가 포함되며 문화적응 과정의 조절 요소는 문화적응 전략, 문화 유지, 사회적 지지, 대처 전략 및 지원, 편견과 차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반구조화된 질문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의 가족 경험, 사회적 인식 및 평가와 사회적 수용 경험,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변화에 대한 개인적 의미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질문은 개방형으로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맥락적 경험 의미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면접초기에는 기초적, 기술적, 분석적인 질문 위주로 진행하고 후기로 갈수록 대조적, 평가적, 종합적 질문으로 구성하였다(Y. Cho, 1999).

심층면접 실시시간은 결혼이주여성과의 사전 조율하였고 면접 장소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을 이용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이 제안하는 곳에서 실시하였다. 본 면접에 앞서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면접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연구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면접을 도중에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연구윤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면접 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실시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녹음하였으며, 녹음 이외에 심층면접 도중 연구참여자가 표현하는 비언어적 행동, 표정 등은 현장노트에 메모하였다. 녹음된 면접내용은 면접 후 1~2일 이내에 전사하였고 현장노트의 메모는 면접내용을 전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해석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사 후 추가적 질문이나 의미 분석에 있어서 동의를 구해야하는 경우 전화, SNS, 이메일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점검(member check)' 절차를 수행하였다(S. B. Merriam, 1998).

2) 현상학적 자료 분석

현상학이란 현상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본질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M. van Manen, 1990).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와 구조인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여러 개인들의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체험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J. W. Creswell, 2005).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현상과 차이를 삶의 맥락과 경험적 의미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 분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방법은 Giorgi, Colaizzi, Van Manen, Van Kaam 등에 의해서 개발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독특성 진술과 전체의 경험적 현상을 상황적 구조에서 일반적 구조 진술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분석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A. Giorgi(1997)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은 학문적 용어로 전환된 의미단위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한 후 구조를 통합할 수 있다. 구조는 본질과 구성요소들의 관련성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추상화된 수준으로 설명될 수 있다(H. Lee, 2005). 다시 말해 상황적 구조 진술은 개인의 독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 진술로 통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의 4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전사된 진술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와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술한 내용의 경험적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사된 진술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참여자 입장에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진술내용을 다시 읽으며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과정으로, 진술된 내용에서 현상학적 의미전환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는 곳을 표시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단위를 구분한 다음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내용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범주화하여 총 127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Table 2. Adaptation Experiences Categorized by Native Country's Sociocultural Context

Sociocultural context	Theme	Sub-theme	Meaning unit	
Socioeconomic aspect	Aspiration for new opportunities and world	Transnational immigration giving hope to family-of-origin's life	Taking it as a fate to provide transnational aids to parents and family of origin	
		Longing for living in Korea : Korea is my dream country	Having a good image of Korea due to Hanryu and Korean dream	
	Disappointment and frustration	Unaffordable life in Korea and husband's lack of understanding of economic activities		Feeling sorry and frustrated for failing to give plenty financial aids to the family of origin
				Regrets at husband's conflicting position over economic activities
		Cold eyes against Vietnamese immigrant women		Temptation from foreign worker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from other immigrant women from countries richer than Vietnam
Aspect of familial value and living culture	Conflicts over unilateral acceptance of difference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in Korean & frustration at husband's not learning Vietnamese language	
		Wide cultural gaps	Conflicts over accepting husband's parents' demand for lifestyle and different food culture	
		Complex and boring holidays	Different holiday atmosphere between Korea and Vietnam, leading to an irresistible yearning to visit Vietnam with children	
	Building social relationships	Interactions with other immigrant women of the same country-of-origin	Dependable but not fully reliable persons	
		Lack of Korean networks	Passive and not subjective interactive relationships that are hard to access despite desire for intimacy	
		Using local community welfare service	Using welfare resources and professional supports conducive to living as immigrants	
Aspect of female status and mother role	Conflicts due to patriarchal hierarchy	Marginalization from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Experience of a sense of loss due to lack of authority over husband's income	
		Conflicts ov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due to patriarchy	Conflicts over female value system due to vertical hierarchical division of household labor	
	Education as a symbolic value	Concerns and hopes of children's learning	Macroscopic expectation and exploration of children's education and future	
		Being a proud mom	Children give me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my marriage in Korea and an intention for self-development	
		Being an active subject	Hoping to engage in giving supports to other immigrant women	
		Double-sidedness of mother identity strategy	Korea is a 2nd homeland	Experience of having personal identify as a Korean due to children
Korea is a stopover country	Thinking of returning to Vietnam after fulfilling the parental calling for children			

3단계는 의미단위들을 중심의미로 주제화하고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진술내용을 구체적인 범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도출된 의미단위 분석을 통해서 중심의미를 7개의 대주제와 17개의 하위 주제로 최종 분류하였다.

4단계는 도출된 중심의미의 주제를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제에 맞도록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상위 개념으로 구조화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적응경험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제별로 분석된 상황적 구조 진술을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춰서 재범주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Table 2>와 같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구조를 통합하여 일반적 구조로 살펴보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적 본질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질적 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정량적 연구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실행하는 연구 방법으로, 연구참여자가 집단의 대표성이나 일반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Y. Cho, 1999). 즉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다른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Y. S. Lincoln and E. G. Guba(1985)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평가 요소에 기반을 두었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자료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의미한다. 사실적 가치 확보를 위해서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과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연구참여자의 진술내용을 전사하고 연구자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 또는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맞는지에 대해서 연구참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물어보는 연구참여자 심사(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다른 맥락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연구결과가 다른 상황에 적용 가능한가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의 적용성 확보는 자료 수집이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포화상태란 면접 시 반복적인 진술 이외에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없을 때 면접을 종료하는 것으로, 현장 노트의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thick description)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응답과 반응이 나올 때까지 면접을 진행하였고 현장노트에 비언어적 반응인 행동, 표정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이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되며, 연구결과의 반복성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는 사람들의 경험의 다양성과 환경의 독특성을 강조하므로 동일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자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 일관성은 충족된다(H. Lee, 2005). 따라서 일관성 확보를 위한 다중적인 정보 수집을 수행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면접과 관찰 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편견과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록 자기 반성적(reflection) 연구저널 작성과 연구자의 선이해 및 경험에 대한 괄호치기(bracketing)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 윤리

이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연구자 2인은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의『임상연구와 윤리』교육을 이수하였다. 또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에 연구와 관련한 제반 서류의 검토 절차인 심의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승인받은 과제번호는 P01-201405-SB-03이다.

IV. 연구결과

1. 적응경험의 상황적 구조

이 연구는 A. Giorgi(1997)의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진술에서 상황적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7개 대주제와 17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7개의 대주제는 '새로운 기회와 세상에 대한 열망', '실망과 좌절', '차이에 대한 일방적 수용 갈등', '사회적 관계 맺기', '가부장적 위계로 인한 갈등', '상징적 가치로서의 교육', '어머니 정체성 전략의 양면성'이다. 7개의 대주제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측면,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 측면, 여성 지위와 어머니역할 측면으로 재범주화하였다.

1)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측면

(1) 새로운 기회와 세상에 대한 열망

베트남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딸로서의 삶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주를 선택하는 동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원가족의 경제적 조력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특이한 점은 다른 형제자매보다 부모나 가족에게 더 헌신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주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가계경제로 인해 초국적 이주

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어야 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 한국 이주를 결정한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반면 한류나 코리안 드림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겼고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다가 결혼 이주를 선택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가. 원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초국적 이주

연구참여자들은 원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최후의 방편으로 한국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본 한국은 잘 사는 나라·기회가 많은 나라이기에 연구참여자들에게 결혼이주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부모님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빠가 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모, 등록금 그런 것 대줘요(내가 벌어서). (중략) (한국 오면) 만약에 내 부모 아플 때 도울 수 있죠.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마 10만원, 20만원 보텔 정도도 되고 부모 초청도 되고 외국으로 나가도 되고. <참여자 A>

저는 예전에 (베트남)집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가족한테 뭐 도와야한다, 그런 생각해서 제가 선택했죠. 베트남에서는 매일 힘들게 사니까 (좋았던) 기억 없어요. 외국사람 결혼해야 부모님 도와줄 수 있고 외국 나가야지 돈 벌 수 있고. 다 경제적인 것, 대부분 국제결혼 여자 마음은 다 그렇죠. <참여자 B>

초등학생부터 엄마랑 장사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비오는 날이나 태풍와도 장사해요. 고등학교 3학년 대만으로 노동자 비자로 나왔어요. (중략) 먹는 것도 안 사먹어요. 매일 열심히 돈 벌어. 옷도 안 사 입고 이불도 안 사 덮었어요. 병 걸렸어요. 폐렴. (중략) 나는 한국 가서 열심히 돈 모아서 저축해서 엄마 아빠 도와야지. 동생들 학교 보내라고(생각했어요). <참여자 C>

나 친정 힘들어서, 베트남 남자 결혼하면 친정 안 해줘요(안 도와줘요). 보통 그래요. <참여자 D>

나. 한국생활에 대한 동경 : 꼭 가고 싶은 나라, 한국 동남아시아의 한류 진원지인 베트남은 미혼여성에게 한국 남성과 생활에 대한 낭만적 사랑과 향수의 초국적인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지인이나 동네에서 활동하는 소개업자를 통해 한국남성을 소개받았으며, <참여자 G>의 경우 결혼 중개업체를 직접 찾아가

한 달여의 기다림 끝에 한국남성을 소개받았다. 즉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은, 민족, 지역, 언어, 문화를 초월하는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만든 중요 변인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죠. 다른 문화,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은 없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전날 남편 믿었고 오히려 편하게 친구들이랑 놀고(그랬어요). 마지막이라고. (중략) 이미 여기 와 있는 친구가 (남편)소개시켜줬어요. <참여자 E>

저는 한국 오는 것 좋아요. 베트남에서 텔레비전이나 영화 많이 봤잖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한국생활 좋아 보이고 좋은 사람도 많고 한국남자도 멋있고 피부도 하얗고 한국 사람들이 좀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오고 싶었어요. 동네에서 결혼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참여자 F>

진짜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 너무, 매일 매일 드라마 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고 싶고 우리 아빠가 혼자라서 위험하다고 대만에 고모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같이 살자(그랬어요). 근데 내가 안가. 동네에서 어떤 친구가 (한국 사람하고)결혼했는데, 어떻게 했니, 전화번호 줘라. 호치민은 우리고향에서 4시간 걸려요. 한 달 동안 호치민 있었어요. 좋은 사람 소개 시켜달라고. <참여자 G>

(2) 실망과 좌절

연구참여자의 친정에 대한 경제적 원조 욕구는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이해부족과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현실적 난관에 부딪쳐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 연구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편견을 체감하게 되는데 사회적 편견 이외에도 가족 내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국적이 다른 결혼이주여성과의 상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 여유롭지 않은 한국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남편의 이해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은 운택한 수준이 아니고 친정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 쉽지 않은 현실을 직면하면서 자신들이 베트남에서 인식했던 코리안 드림은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된다. 또 친정에 대한 경제적 원조에 있어서 자신과 배우자 간 인식차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다 잘 살 것이다라는

통념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C>와 <참여자 G>는 경제적인 면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은 결혼이주여성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여자분 여기 오면 돈 막 벌고 친절 보내서 집도 짓고 크게 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사람들 매달 돈 보내는데, 천불 보내요. 집짓고 필요하면 오토바이, 차 산다하면 돈 보내요. 그럼 저랑 비교했을 때 전 아무것도 없는 거지. 차라리 베트남에서 결혼하지. 왜 한국 갔냐. 그런 식으로(이야기해요). <참여자 A>

한국주부들 매일 집에 있으니까, 베트남은 여자들 많이 일해요. 여기는 엄마 집에 애들 키우고 우리 베트남은 그냥 나가서 일해요. 베트남 가면 왜 일 안하냐고, 왜 집에 있냐고 물어봐요. 남편 돈 많이 버냐고. 엄마한테 돈 많이 보내 주냐고. 경제적(면)에서 많이 물어봐요. (기분이)좋지 않아요. (제가)한국 나오니까 잘살겠지 생각하겠죠. (중략) 한국에 시집온 사람 동네마다 몇 명 있죠. 동네에서 우리 사위는 얼마 도와주고 내 사위는 안도와주고 비교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이주결혼여성 많이 힘들어요. <참여자 B>

여기 센터 올 때 남편이 차비밖에 안줘요. (중략) 너무 남편이 각쟁이처럼 하면, 여기 (해외)근로자 많아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남자들, 남편이 자꾸 그러면 근로자들 여자 친구 없잖아요. 같이 놀자고 유희 많아요. 외국마트 가서 자기 좋아하는 것 사주고 하나씩. <참여자 C>

베트남에서 외국사람 결혼하면 (친정한테)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남편은 그냥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자는 매일 도와주세요(하니까). (서로 입장이)다르죠. <참여자 E>

드라마하고 너무 달라서, 애기 아빠한테 집이 왜 이렇게 달라요(물었어요). 그건 드라마지. (중략) 한국에는 여자들 일 안 해요. 베트남은 바로 다녀요, 무조건. 여기 안 그러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맘에 안 든다. 국적 나오면 애기 놔두고 집 나가는 사람 있어요. 다른 남자 만나요. 베트남 남자들(근로자)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국적 있으면 베트남 남자 데려올 수 있어요. 안산역에 많아요. 제 주변에도 2명 있어

요. <참여자 G>

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다문화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는 연대적 공감을 형성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출신국의 사회·경제적 열악함과 편견으로 인해서 가족, 사회, 타국가 이주여성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선 가족에 의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해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시가 구성원들은 베트남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저성장 국가 이미지로 인해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아내와 주부로서의 경제적 권리 축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심리적 교류 단절, 사회적 참여 제한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큰애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때문에 그 상가, 저 물래 샀어요. 통장 쥐라, 등본 떼 쥐라, 인감 다 뒀어요. 그 돈 받고 저한테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가)상가 산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시부모님한테 이야기했지. 나한테 숨겼다고. (시부모가)너 왜 욕심 내냐, 너 지금 돈 밝히냐고. 나 가정부 아니고 일하는 사람 아닌데. <참여자 A>

시누는 나한테 존중 안 해, 시누가 남편 동생이에요. 제 이름 불러요. 올케언니 안 그래요. (중략)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잠바를 주면서)이거 입어라, 샀다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새것 아닌데, 동서 입은 것 본거 같은데, 너무 섭섭했어요. 나를 바보로 아나 봐. 왜 거짓말해요. <참여자 C>

막내 아가씨들이 물어봤어요. 언니나라에서 손으로 밥 먹어요? 제가 황당했어요. 어디에서 들어서 나한테 그러냐. 가족들은 (내가)외국인이라서, 우리 남편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결혼하는 거예요. (중략) 시어머니가 운전 면허증 따고 싶어도 너 그런 것 못해. 너 동서랑 비교하면 안 돼. 너 외국인인데 어떻게 하나, 너 그거 따서 뭐하냐(그래요). <참여자 F>

두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 경험은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한 편견, 연구참여자들을 베트남에 거주하는 원가족의 한국 노동자 초청을 위한 매개자로 보는 시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이

대표적이다.

베트남 여성분 같은 경우 남편과 나이차이 많이 나요. 물론 제가 볼 때 18살, 19살 나이차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다 어린 여성과 결혼하면 20살, 30살 정도 차이 날 때 있어요. '너무 어리다', '돈 없어서 딸 팔았다'고 말 많이 들어요. <참여자 A>

옷 가게 가서 차별 받았죠. (중략) 싼 것 알려줘요. 또 특별한건 밖에 나가면 남편과 나이차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리고 다문화라는 말 안 좋아요. 한국 엄마와 베트남 엄마 다르지 않아요. <참여자 B>

외국 사람은 돈 없어, 힘들어, 그런 생각도 있어요. 베트남에서 힘들게 살아. 너무 가난해. 돈 욕심 때문에 한국 와서 결혼해(라고 생각해서). 한국 사람이 외국사람 무시해. 한국 국적 받았는데. <참여자 D>

제가 그때 한번 남대문 시장에 갔거든요. 거기 있는 아주머니가 자기 공장에서 베트남 분이 계시대요.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다 보내주고 부모님 초청해서 일 찾았대요. 저는 손님이거든요. 저한테 부모님 초청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전 안합니다(대답했어요). 대부분 다 하는 거 아닌데. <참여자 E>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국가 결혼이주여성들과 상호 이해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편견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베트남과 다른 나라의 경제적 차이, 침략 역사에 의한 부정적 인식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문화 센터 가면 중국, 러시아(있는데), 특히 러시아하고 잘사는 나라들이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이 옷이 좀 예쁘게 안 입어, 패션처럼 안 입어. 그러니까 눈치주고 미워해. 싫어해. 특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너무 심해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는 친해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끼리만 그렇게 잘 지내요. <참여자 C>

센터에서도 조금 (같등)보였는데, 복지관에서 옛날에 몽골, 중국이랑 러시아분들 친하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가 친하더라고요. <참여자 E>

저 중국 사람은 싫어요. 정말 싫어해요. 더러운 느낌, 어두워 보여요.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 사람

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인사만 하지 얘기 안 해요. 어릴 때부터 중국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들어서, 나쁜 것 있으면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베트남 중국 결혼하는 것 있는데, 거의 행복하게 살지 않고 몇 십 년 동안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가 베트남 돌아오는 거예요. 중국에 결혼하면 술 먹으면 때리고 개처럼 살았다고(들었어요). <참여자 F>

2) 베트남의 가족치관과 생활문화 측면

(1) 차이에 대한 일방적 수용 갈등

결혼이주는 노동이주와 달리 이주한 국가에서 가족 및 친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새로운 가족 및 친족관계는 문화적 공감과 공유, 규범과 통제, 배려와 친밀감 등의 다원적 측면에서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제도 안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배우기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은 언어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동시에 베트남어에 무관심한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배우자를 포함한 시가 구성원들은 연구참여자의 빠른 한국어 습득을 원하면서도 이들의 한국어 습득을 위한 외부 자원활용에는 인색한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언어 쪽으로 다문화 가정 말 안 통하는 것 많은데 양쪽(부인과 남편)에 잘못 있다고 판단 낼 수 있어요. 한국말 모른다 그러면 남편이 좀 빨리 안 배우냐. 한국말 매일 빨리 빨리 배워라. 남편은 베트남 말 안 배우잖아요. <참여자 A>

저 한국 와서 한국어, 한국문화, 예절 풍습 배웠잖아요. 그거 다 남편도 (베트남어, 문화, 예절)배웠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왜이래? 그런 소리해요. <참여자 B>

아버님이 (다문화 센터)안 보내줘요. 그냥 집에서 가르쳐주고, 집에서 책보고 텔레비전 듣고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내가 공부해서 배웠어요. <참여자 G>

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문화 차이의 극복 전략 : 한국식으로 생활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음식 저장 문화를 비롯하여 베트남과

크게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배우자와 시가 구성원 대부분은 이 차이를 '한국식으로 생활하기'로 극복하도록 요구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이리 저리 해라. 애기 돌 지나기 전에 옷 빨래 삶아야 하잖아요. 하얗게 이뻐야 돼. 그런 식으로 매일 삶아라. 베트남에서는 안 삶아요. 짜증나요. 그래도 해요. <참여자 A>

여기는 시부모 있으면 다 일찍 일어나나 봐요? 왜 한국은 아침 밥 먹어야 해요. 우린 간단히 먹어요. 밖에서 파는 것 먹고 국수나 빵이나 간단히 먹고, (중략) 베트남은 다 밖에서, 집에서 아침 밥 먹는 사람 거의 없는데요. 베트남에서 반찬하면 조금만 하고 먹고 나면 남은 것 버려요. <참여자 F>

어머니 시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불편한 거 많아요. 따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돼요. 제가 이쁘게 옷 입고 싶은데 못 입게 해요. 바람 필까봐 그런가. 시부모님 아침 8시 밥 먹고 점심 1시 먹고 저녁 7시 밥 먹고, 저 밥 안 먹으면 혼나요. 밖에서 사먹으면 혼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참고 참고 참고 지금까지 참고, 안 그러면 평(허공으로 손짓). <참여자 G>

다. 복잡하고 재미없는 한국의 명절문화

베트남의 명절은 가족과 친족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의 큰 축제와 같으며 즐겁고 흥겨운 전통의 공동체적 문화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명절은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이질성과 경계를 가장 크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영역으로 그 간극은 좁히기 어려워 보였다. 연구참여자 인터뷰 중 대부분의 참여자가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좋은 것은 '명절'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는 밤 9시부터 제사지낸다. 그런 식으로, 음식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고. (중략) 베트남에서 한국과 달라요. 제사, 파티하면 가족이 다 모여서 하고 동네 주변사람들 와서 도와요. 100명, 200명 정도 그런 식으로. <참여자 A>

설날 달라요. 한국에서 설날, 추석에 놀러 안 가. 답답해요. 가서 인사하고, 근데 재미없어요. 제가 한국 와서 5년 넘었지만 설날 자꾸 고향(베트남) 가고 싶어요. 고향에서 축제같이, 친척 사람 다 같이 모여요. 맛있는 것 같이 먹고 동네사람 와서 인사하고 한

국 안 그래요. <참여자 D>

설날에는 베트남 (자녀)테러가고 싶어요. 베트남은 설날 편해요. 여긴 복잡해요. 베트남에서는 좋아하는 음식 만들고 친구도 놀러오고 축하하고 한국은 가족도 안 오고 놀러 안 나가고. 그냥 먹기만 해요. <참여자 G>

(2) 사회적 관계 맺기

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의 교류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관계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지역·문화의 동질감과 한국거주라는 공간적 동시성으로 인한 연대감은 있으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절충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였다. 다시 말해 정보 획득, 스트레스 해소 등의 차원에서 기능하는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만나는 것만 해요. 내 이야기 털어놓는 사람 거의 없어요. 베트남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중략) 얘기하자마자 다른 소문나고 하니까. <참여자 A>

자조모임, 같은 베트남 자조 모임 있잖아요. 법. 한국 법 어떤지 알려주고 한국 문화, 새로운 친구한테 한국문화 알려주고 좋은 것 나쁜 것 알려주고. 그렇지만 같은 베트남 사람하고 놀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진심 아닌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참여자 D>

베트남 사람하고 너무 많이 놀면 소문도 많이 나고, 솔직히 다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참여자 F>

나. 한국인 관계망 부족

연구참여자 중 한국인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간 <참여자 C>와 <참여자 G>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한국인과 친밀해져야 할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먼저 다가가는 부담스러운 긴장관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즉 출신국의 결혼이주여성과의 교류 관계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반면, 한국인 교류 관계에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엄마들)놀이터 갈 때마다 보잖아요. 그때 물어봤죠. 애기들 몇 살이냐고, 따로 안 만나요. <참여자 B>

그 사람들이(학부모) 저한테 왜 잘해 주냐면 내가 먼저 인사, 얼굴 몰랐지만 다른 반 엄마한테도 먼저 안녕하세요(해요). 왜 같은 학부모니까, 먼저 웃는 건 인사예요. (그러면 상대방이)아 안녕하세요. 사람이 똑같아. 표현이 필요해요. <참여자 C>

한국인 거의 안 만나는데, 만나면 인사해요. 놀이터에서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친한 정도 아니에요. 솔직히 친해지고 싶는데 내가 외국 사람이라고 말 안 시켜주는가. 제가 한국말을 주고받을 정도가 아니라서, 한국사람 친구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면 불러주면 좋겠는데. <참여자 F>

유치원 때부터 한국 엄마들 만나요. 외국 사람이 먼저 해야지, 그 사람들 먼저 (인사)안 해요. 그냥 제가 먼저 인사하면 (한국 엄마들이)누구 엄마니? 우리 같이 한잔 먹자,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친해졌어요. 먼저 인사해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결혼이주여성) 나이가 적잖아요. <참여자 G>

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활용

연구참여자들은 소속된 지역의 복지 자원과 전문가 지지 관계망 활용을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받고 있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유대감 인식 및 의미 있는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문화 센터 팀장님이 위로해주고 잘해주니까 기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위로만 해주면 살 수 있잖아요. 다문화센터 팀장님이, 선생님들이 (나보고)웃어. 기뻐하고 “왔어? 오랜만이네” 반가워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내가 마음 속상할 때는 다문화 센터 찾아왔어요. <참여자 C>

한국어교육, 야외활동도 하고, 요리, 미술 심리치료 해봤어요. 재밌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풀어놓으니까. 친구들 서로 웃면서 얘기하고 내가 그린 그림 설명할 때 서로 웃면서 얘기하니까. 한 4-5번 했죠. 가끔씩 하면 괜찮아요. 스트레스 풀어요. <참여자 B>

부부 상담을 좀 받았어요. 그때는 어머님과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시어머니랑 크게 싸워서 남편이랑도 싸웠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생각 들어서 상담 받고 마음을 좀 풀었어요. 전문가가 도와주면 좋겠죠. 정확하게 정보 주잖아요. 친구들이 나한테 상담하지만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여자 F>

3) 베트남의 여성 지위와 어머니 역할 측면

(1) 가부장적 위계로 인한 갈등

연구참여자 대부분 남성 생계부양자 형태의 가족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순응을 요구하거나, 남성 중심의 규범·규제를 통해서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위계적 가족 구조 형태는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가. 가계 경제 관리의 주변화 현상

배우자의 수입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참여자 C>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가계 경제 관리 측면에서 주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배우자와 상호 간 신뢰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집에서 생활비는 월급 다 안주고 1/3(만 줘요). 그거는 내가 시장 봤을 때 쓰고 애들 보험이나 집에 큰 돈 하는 것 남편이 다 쓰고. 이상하게 우리 남편 (나한테)안 맡기더라고요. 그냥 얼마만큼 너 생활비하라고 조금 주고 (나한테)믿음이 없나 그러죠. 다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싶어요. 욕심 있어요. 같이 살면서, 나 믿어주는 거니까. <참여자 B>

(한국 와서) 6개월에 임신해서 첫째 낳고 둘째 낳은 다음 노름하는 것 알았어요. 그냥 죽고 싶어. 그래도 저는 아껴 썼어요. 일주일에 10만원 갖다 줘. 남편이 지금 아주 잘해주고 이제 남편 월급 다 저한테 들어와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참여자 C>

다문화 가정이면, 제가 생각하기엔 돈 개념이 없거나, 생활에 대해서 저처럼 못하거나, 남편이 불안해서 부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친절에 다 보내줄 것 같은 그런 생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어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아들 돈 빼서 친절에 보낼까봐 불안해서, 돈 관리 안 맡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나. 가부장적 가사분담 갈등

<참여자 A>와 <참여자 F>의 부부관계는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의 특성인 수직 위계적 가사 분담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명의 연구참여자는 베트남에서의 가정 내 여성 지위와 비교·설명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인식의 가치 체계가 다름을 지적하였다.

좀 달랐죠. 여자 하는 행동, 역할, 책임감 달라요. 한국은 여자 집안일 해라. 애기 낳아라. 남편 뒷받침 해라. 베트남은 서로 공평하게 너도 하고 나도 한다. 그런 식으로 달라요. <참여자 A>

우리 동네에서 거의 남자가 반찬해요. 먹고 나서 여자는 설거지하고. 만약에 가족 모임 있으면 큰 아빠, 작은 아빠, 우리아빠 반찬 해요. 우리 엄마, 이모들은 앉아서 그냥 야채만 따요. 여긴 여자가 다하잖아요. <참여자 F>

(2) 상징적 가치로서의 교육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본인의 낮은 교육 경험 전환 및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자녀 교육과 자신의 교육 경험 전환 및 사회적 활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가. 자녀 학습에 대한 걱정과 희망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지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직업 갖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거시적이지만 점진적 방안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탐색 부족과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한국 주부들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 대개 빨리 얻어요. 어느 정도 내가 말 잘해도 (난)그 정보 못 따라가요. 어떻게 얻었는지. (한국)어머니 욕심 대개 많아요. 학원 보내고, 정보 얻는 것 저한테 어려워요. 걱정돼요. <참여자 A>

요즘 한국학자들이 많이 걱정하잖아요. 이혼 많이 하고 애들은 한국말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하는지 걱정 많이 해요. 저도 많이 걱정하고. 첫째는 발음 좀 안 좋아요. 바람 소리 많이 해요. (중략) 둘 다 의사하면 다른 나라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베트남가면 좋겠다 생각해요. 나중에 봉사하면 베트남어 모르면 엄마 따라가도 돼. 내가 통역해줄게, 그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B>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건데, 일단은 의사가 되면

병원도 많잖아요. 일자리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E>

나. 자랑스러운 엄마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 지도를 위한 자격 갖춤의 필요성, 본인의 학력이 낮은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면서 대부분 상급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부터 다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내가 여기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되고 나중에 아들 좀 크면 학교생활 어떻게 적응할지 모 학습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배워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이 과정 배워야지, 내가 나중에 아이 양육할 수 있게 되는거고. <참여자 A>

한국말 빨리 배워서 자녀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 췌(켰)어요. 그리고 나도 대학가야지. 애기들이 앞으로 자기 엄마 자랑스러워하고 엄마가 착하고 훌륭하면 애기도 훌륭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방송통신대학교 들어가요. 올해부터요. 법학과인데 아주 어려워요. <참여자 C>

아이 학교 다니면 아이 친구 한국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잘 사는 집, 학력 높은 엄마들끼리 만나니까 불안이 대개 크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좀 학력이 좀 있어야. (중략) 더 공부하고 싶고 한국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끔. <참여자 E>

다. 능동적 주체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한국생활에서 경험했던 주관적 적응과 성취 맥락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재생산하여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즉 결혼이주여성 대상 상담자 및 조력자로서의 역할 기대가 있었다. 새롭게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족 내 편견과 인식 차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 시댁과의 관계 형성 등에 관한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나마 내가 의사소통 잘 되서 표현하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온지 얼마 안 된 베트남 여성) 말 안되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 마음을 알고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시부모 문제 있으면 조울

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시대 아니고 신세대처럼 바뀌야 해요. <참여자 A>

(현재)멘토 봉사 나가요. 새로운 베트남 신부들(한테) 한국문화, 한국음식 몰라요. 그거 제가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참을성, 인내심도 필요하다. 처음 왔을 때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중략) 다문화 상담이나 교육하고 싶어요. 왜냐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언니 이렇게 살았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할 수 있도록). <참여자 C>

제가 베트남 분들 특히 센터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남편이 돈 안준다고, 시어머니 왜 그러냐고, (중략) 한국 문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험 많이 얘기 해줄 거예요. 적응기간이 외국 사람이면 한 2년 걸려요. 빨라도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중략) 한국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반찬은 못 하더라도 시어머니 옆에서 하나씩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특히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남편한테 소리 지르거나, 부부만 사는 집 보다는 남편 존중해야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것 알려주고 싶어요. <참여자 E>

(3) 어머니 정체성 전략의 양면성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어머니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한국사회 적응의 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가족 및 사회적 소속감 정도에 따라서 통합형 정체성과 분리형 정체성의 두 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 한국은 제2의 고향 : 통합형 정체성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양육 경험은 초국가적 공간인 한국 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즉 주류 사회인 한국사회 문화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통합형 정체성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자녀 양육 경험은 능동적 적응 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었다.

작년, 재작년에 독도(문제) 싸우고 북한(문제)있잖아요. 친구들이 베트남에 (돌아)가자고. 나는 얘기 두 명이나 있고 난 베트남 사람이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에요. 북한 와서 (전쟁나면)나도 같이 싸워야지, 이겨야지. 사람이 성실해야지. 나는 죽어도 여기 한국에서 죽어. <참여자 C>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에요. 베트남도 고향,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한국, 왜냐면 나는 한국에서 애기 아빠하고 애기하고 평생 살아. 애기 아빠 돌아가도(죽어도) 나 한국에서 애기랑 살아. <참여자 D>

여기 살면서 저는 외국 사람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전 구별하지 않아요. 여기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으니까. 나중에 베트남 가서 살거야 그런 생각이 없어요. <참여자 E>

국적 나와야 (한국)이름 바꾸니까, 그래야 애기 입학할 때 외국 사람인거 몰라요. 학부모 이름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국적 바꿨어요). 전 베트남에서 왔지만 마음은 한국 사람이에요. <참여자 G>

나. 한국은 잠시 머무는 곳 : 분리형 정체성

<참여자 B>는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자이지만 문화적 상대성과 배타성을 심리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현재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향후 베트남으로 회귀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참여자 F>는 이중국적자이며, 자녀가 다 성장하고 남편이 사망하면 한국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므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참여자 B>와 <참여자 F>는 심리적으로 한국 사회 소속감 획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자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출신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한 절충적 해결 방안으로 한국에 대한 분리형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사니까 여기 적응해야죠. 안 그러면 제가 힘들고. 이제 애들 때문에 한국에 계속 살아야하니까. (나는)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국적 있지만 베트남 사람 같아요. 한국사람 다됐네라는 말 기분 안 좋아요.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사람 약간 자랑스러워, 잘 따라 해야 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도 한국사람 이제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죠. 나이 많이 먹으면 베트남에 갈 거예요. <참여자 B>

나중에 늙으면 베트남 갈 거예요. 애기 다 크면 결혼하고 아내 있겠죠. 그럼 한국에서 할 일이 없으면 갈 거예요. 남편은 아마 그 때 안 계실 거예요(나이가 많아서) 지금 나 남편하고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아요. 가서 죽을 때까지 베트남에서 살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참여자 F>

2. 적응경험의 일반적 구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춰서 살펴본 7개의 대주제와 17개 소주제의 상황적 구조 진술을 일반적 구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적응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신국인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 이주를 강요나 수동적 선택이 아닌 능동적으로 선택하였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가 결혼이주를 선택한 직접적 동기 요인은 원가족의 생계문제,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베트남의 사회적 구조, 코리안 드림, 한류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결혼 전 부모를 헌신적으로 돕는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결혼 이주를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코리안 드림과 한류의 영향으로 낭만적 사랑과 경제적 풍요를 실현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여 결혼이주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 후 실망과 좌절 상황을 인내해야 하는 적응경험을 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기대했던 한국생활과 현실이 다르고,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제약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베트남 친정가족에 대한 원조와 관련해서 배우자와 입장이 크게 다름을 경험하게 된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삶과 출신국인 베트남에서 인식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통념의 간극으로 인해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결혼 전 베트남에서 본 결혼이주여성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친절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친절을 돕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한계가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보다 저성장 국가인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 사회, 타국가 결혼이주여성으로부터 일상적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먼저 가족 내 차별과 갈등 양상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 보상금이 나왔지만 본인 모르게 상가를 구매한 것에 대한 분노, 시댁 식구들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음에 대한 서운함, 한국인 동서와 차별 대우하는 시부모 등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은 배우자와의 많은 연령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서툰 한국어로 인한 차별, 다문화라는 단어로 자국민과 구별 짓는 느낌, 돈 때문에 못 사는 나라 여성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고 무시하는 느낌 등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 간의 갈등도 경험하고 있었는데 중국, 러시아, 몽골

에서 이주 해온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국가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주여성을 차별하거나 다르게 대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었고 이러한 양상은 종종 집단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소수 집단의 내부에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차이에 대한 일방적 수용 갈등'과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관계 맺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과 시가 구성원들은 베트남어 학습에 소극적이며, 연구참여자의 한국어 학습을 요청하면서도 이를 위한 외부 활동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출신국과 다른 음식문화와 생활방식, 한국의 명절 문화와 제사 풍습에서 커다란 이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시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거나 동거 중인 <참여자 A>, <참여자 F>, <참여자 G>는 시부모가 요구하는 한국식 생활 방식을 수용하고는 있지만 내부적 구속감을 크게 토로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가족 내 지위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들의 변화가 포함된 쌍방향 변화가 아닌 연구참여자만의 일방적 변화를 통한 역할 순응 및 동화를 강요받고 있었다. 이는 베트남의 가족관계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상이한 상황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적 교류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적응 기제로 활용해야 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사회적 교류 관계망이 넓지 않은 편이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의 법, 생활, 양육 관련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감대 및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한국 친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관계형성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다. 한국 친구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자녀를 맥락으로 한 관계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활동 참여와 기관 실무자와 상담가의 지지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여성 지위와 어머니 역할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여성 지위 측면에서 '가부장적 위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사적 영역의 주변화 및 이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가족 경제 구조는 대부분 남성 생계 부양자 형태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가족 문화에 따라서 아내인 자신에게 가계경제의 관리가 맡겨지기를 기대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신을 신뢰하

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의 년차가 길어지면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 및 시가 구성원들과 일련의 역할 적응 및 조율 단계를 거쳐 가계경제를 관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남녀 평등한 역할 분담의 가족생활을 기대하지만 가부장적 가사 분담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행동, 책임감 등과 같은 가치 체계의 이질감에서 비롯된 갈등이 있었다.

어머니 역할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상징적 가치로서의 교육', '어머니 정체성 전략의 양면성' 경험을 통해서 베트남의 '자녀를 성공시키는 어머니'의 행위 전략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녀 양육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으로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학벌 중심 현상을 체감하면서 상징적 가치로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어머니 정체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적 가치로서의 교육 필요성은 자녀와 연구참여자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녀 차원에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학습에 대한 걱정이 있는 반면 자녀가 당당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의사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지원망이 부족하고 자녀가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다. 즉 자녀에 대한 기대 행위와 실제적 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강한 자기 개발 욕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가치를 내포한 어머니 정체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개발의 이유를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엄마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녀의 친구 엄마들과 동질성 확보, 공부 잘하는 엄마 모습 보여주기 등으로 자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언급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자녀 양육을 바탕으로 한 자기 개발 의지는 개인적 가치보다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집단적 가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응 방식과 기제를 적극 활용해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가치의 교육 실천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즉 한국생활에서 경험했던 주관적 적응과 성취 맥락을 전달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주류사회 적응의 수동적 주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전이되고자 하는 욕구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는 '자랑스러운 엄마 되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은 자의적 책임감 및 양육자로서 수행해야 할 행위 규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주류사회의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획득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가족 및 사회적 소속감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능동적 적응 태도의 통합형 정체성과 한국사회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이 낮고 타자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절충적 해결 방안으로써 획득한 분리형 정체성이다.

전반적인 일반적 구조 진술을 정리한 결과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적응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열망의 이면인 실망과 좌절의 갈등 속에서 주체적인 어머니로 성장하기'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특성에 따른 적응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현상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적응경험을 상황적 구조와 일반적 구조로 기술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경험은 저소득국가인 출신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일상적 편견과 차별, 이주 전 경제적 기대에 대한 실망감, 사회적 관계망 축소, 여성으로서 가족 내 지위 약화 및 가계 경제 관리의 주변화, 한국사회의 적응자원이 될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전략적 정체성 수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열망의 이면인 실망과 좌절의 갈등 속에서 주체적인 어머니로 성장하기'이다. 주목할 점은 가족 내 '여성' 지위와 '어머니' 지위 획득 행위 간의 적극성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전략적 정체성 수립 차원은 매우 능동적 주체이지만 다른 차원의 적응경험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수용하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며 그로 인한 내부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을 통해서 초국적 이주를 선택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경제적 문제로 이주를 결심하지만 결혼이주 후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반 여건의 제한으로 혼란 및 배우자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원 부족과 가족갈등은 적응과제와 함께 다양한 가족·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K. Bae & Y. Seo, 2011). 또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잘 살 것이라는 베트남의 통념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딸의 외국인과의 결혼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하나의 전략 및

대단한 성공으로 인식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계층에서 대개 결혼이주를 선택하기 때문이다(H. Kim, 2006).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출신국이 저소득국가라는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 사회, 타국가의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일상적인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복합적 어려움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 Seong, 2009). 특히 가족 내 차별과 편견은 주류민족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는 향후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H. Silver, 1994). 즉 편견과 차별은 적응 수준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 소수자로서 가족 내 지위가 취약했으며 문화적 간극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과 순종을 요구받고 있었다. 또 배우자와 시가 구성원들로부터 역할 순응 및 동화가 기대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가족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이전에, 전통적인 아내와 며느리 역할 수행의 압력과 통제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J. Hwang, 2009). 연구참여자들은 적응을 위한 문화 수용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축제 분위기인 베트남 명절과 의례적인 한국 명절에 대한 문화적 간극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명절은 가장 슬픈 날'이라고(E. Lee, 2013) 표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가족가치관 및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역 별로 가부장제 또는 양계제라는 가족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베트남의 전반적인 가족문화는 여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문화에 대한 한국 배우자와 시가 구성원의 이해 및 정보 부족은 이주여성의 근원적 적응을 저해하고, 정서적 외로움 및 문화 상대적 배타성 경험은 심리적 복지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지역·문화 동질성과 공간적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교류 및 관계망 체계는 자국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국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망과 지지 영역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한국인과의 친밀한 관계구축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국인 친구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맺기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주류사회에 능동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자신감 및 다양한 정보 획득과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다. 이는 조언 및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친구 집단 형성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정서적 고립 상태일 가능성을 의미한다(E. Lee & M. Jun, 2013).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가부장적 가족 체계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K. Hong, 2000; S. Sim, 200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적응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 가족제도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활동에서 여성의 참여 범위가 제한받는 것이다. 또 한국 배우자의 가부장적 태도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간의 경제적 차이로 더 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가계경제를 관리하는 주부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타국가가 대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낮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가계경제관리 측면에서 배우자 및 시가 구성원과 일련의 역할적응 및 조율단계를 거치고는 있지만 대부분 가계경제의 주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 가부장적 가사 분담으로 인한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여성의 사적·공적 영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과 비교했을 때 사적영역의 주변화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만들고 가족 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여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경험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교육에 강한 성취동기를 보이면서 '자랑스러운 엄마 되기'를 위한 자기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상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 양육은 주류사회에 적응하면서 양육행동, 태도, 가치 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이주국가에 대한 국가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J. Ogbu, 1981; Y. Sim, 2012).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에서의 자녀 양육관인 어머니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자식을 성공시키는 어머니 행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녀의 자립형 성장 바람과 자기 개발 인식은 편견을 경험한 다문화 구성원이 가족과 사회에서 자존감을 확립하기 위해 강구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다. 즉 낮은 지위의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높은 지위의 집단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다(H. Tajfel & J. Turner, 1986). 또 연구참여자들은 능동적 주체되기 차원에서 다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다양한 적응경험을 조언해줄 수 있는 상담자와 조력자 역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열망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내적 특성을 재평가하고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특성을 발견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생산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H. Tajfel & J. Turner, 1986).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획득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사회 적응

의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체성은 능동적 사회 적응 태도를 보이는 통합형 정체성과 수동적 태도의 분리형 정체성으로 구분된다. 두 정체성은,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은 이주한 국가에서 경험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체 또는 타자라는 고정성에서 벗어나는 분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S. Park, 2008). 분리형 정체성 획득의 원인을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적 구조 진술에서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및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부부관계의 유대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착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경제적 특수성에 대한 배우자 및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주여성의 문제는 상호 연계적·누적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H. Choi, 2012), 베트남 이주여성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야기 되는 혼란 및 갈등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집단적 차원으로 인식을 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원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남성 중심적인 다문화주의, 노동과 결혼의 이주 목적을 구분하는 사회인식, 가난한 나라에서 돈 때문에 왔다는 낙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Y. Heo,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적 맥락성에 대한 배우자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초국적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부장적 문화의 조율 방안 모색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관련 정보제공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Ministry of Justice(2014)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초청하기 이전 한국의 예비 남성 배우자가 이수해야 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3시간에 불과하다. 시간적 한계는 결혼이주여성 출신국의 가족제도 및 가치관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예비 배우자가 베트남 관련 정보를 교육받을 수 있는 지원 및 관리 체계가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우자 및 시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내, 며느리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정보지원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배우자 가족 구성원이 관련 교육 참여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규제 및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 즉 국제결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족과 문화를 재생산하는 쌍방향 변화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

되어야 한다.

셋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입국 전 배우자 및 한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입국 전 한국에 대한 사전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시수가 짧고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2014). 배우자 및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입국은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입국 전 사전 교육의 필수 지정 및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왜곡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사적·공적 영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다차원적 정보 접근 체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과 편견은 심리적 갈등 유발 및 부정적 자아 개념의 내면화로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세대 간 전이될 수 있으며, 총체적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D. Lim and C. Kim(2011)에 따르면 한국은 인종과 민족에 근거를 둔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인(백인), 서양인(흑인), 일본인, 동남아인, 중국인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양인에 대한 거리감은 적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거리감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은 부정확한 정보 및 이미지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인식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를 통해서 다문화 공존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 관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조적·기능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단위별 사회적 지지체계 구성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가족과 사회적 소속감이 낮을 때 분리형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결혼생활,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감소, 심리적 안정에 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E. Lee & M. Jun, 2013), 다양한 지역 관계망을 활용한 사례 발굴을 통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출신국 친구 관계망과 기관 관계망 이외의 지역이나 한국친구 관계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기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친구 관계망 차원에서 주요 맥락으로 작용했던 교육기관의 학부모 모임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주변인이 되지 않도록 멘토제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폭 넓은 자녀 교육 정보 획득 및 전문적인 자기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양육 경험은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 자원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을 위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앞서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서 제시한 교육기관의 학부모 멘토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다차원적 교육 참여를 위한 원격 교육, 학비지원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일 맥락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새롭게 이주해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조력자 및 상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의 인적 자원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M. Cho & Y. Kim, 2011)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문화 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지원이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에서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정보 제공 및 지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결과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을 그들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도출된 적응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해체 원인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에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FERENCES

- Bae, K., & Seo, Y. (2011).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mental health in a sample of marriage immigrant women-mediating effect of soci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4), 183-202.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ur and Applications 2nd. ed., (291 - 326). Boston: Allyn & Bacon.
-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ujaki,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8, 185-206.
- Berry, J. W., Kim, U., Tomas, M.,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hugra, D. (2003). Migration and depress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 67-72.
- Busseon, T. (2006). *Vietnam, the vietnamese people*. Seoul: Daewon Press.
- Cahe, O., & Hong, D. (2007) Case study for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adjustment to korea,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1), 61-73.
- Cho, H., Jeoung, S., Kim, J., & Kwon, J. (2007).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ive kinds of access. Seoul: Hakji Press.
- Cho, M., & Kim, Y.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identity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s in Korea.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Society*, 18(2), 263-389.
- Cho, Y. (1999).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eoul: Education Science Press.
- Choi, H. (2012). Study on social exclusion and acculturation of immigrant women.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8(1), 217-244.
- Choi, J. (2009). Vietnamese immigrant women's strategies of action in deterritorialized spaces : eun-hye and hongnoan's talk of love and marriag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3(4), 107-146.
- Choi, Y. (2010). Research of Vietnamese women fought background in the first · second of Vietnam war. *Vietnam Research*, 10, 138-181.
- Chung, K.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migration and their adjustment of life in Kore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20, 69-103.
- Creswell, J. W. (2005).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2005. Print.
- Doosan Encyclopedia. (2014). *Vietnam*. Retrieved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4082#MGROUP_101015000147363.
- Fenta, H., I. Hyman., & N. Samuel. (2004). Determinants

- of depression among ethiopian immigrants and refugees in Toronto.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 363-371.
-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y*, 28, 235-260.
- Ha, S. (1994). A brief study of Vietnamese social behavior: the structure of social relations in Vietnam. *Theses Collection*, 12(1), 387-401.
- Han, Y. (2012).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Heo, Y. (2013). *Home family support of immigrant women*. Seoul: Hanwool Academy.
- Hong, K. (2000). *The gender politics of migration viewed through marriage between chosun-jock(korean-chinese) women and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uang, Y. C., & N. J. Mathers. (2008). Postnatal depression and the experience of south asian marriage migrant women in taiwan: survey and semi-structured in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924-931.
- Hwang, J. (2009). '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in Korea: a theoretical inquiry. *Issues in Feminism*, 9(2), 1-37.
- Hwang, K. (1999). A study of changes in Vietnam's relations with Chin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Asian Area Studies*, 2, 12-31.
- Jin, H. (2005).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fe experience of and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adjustment period.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5, 219-244.
- Joongboo Daily. (2014). *Yangpyeong, send marries a rural bachelor*. Retrieved from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03&strWrtNo=4664&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600000&strOrgGbnCd=100000.
- Kang, Y. (1999). What are inside the Korean-Chinese international marriag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2), 62-80.
- Kang, Y. (2011). *Study on the awareness of korean food culture among immigrant housewives in korea and education thereof*.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ei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2007). *Local women policy of Kore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lives*. Keimyung University Press.
- Kim, D. (2006). A conceptual scheme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koreans and analyses of the marriage and divorce registration data.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29(1), 25-56.
- Kim, H. (2003). Vietnam's traditional marriage notion. *Vietnam Research*, 4, 131-149.
- Kim, H. (2006). With a focus on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global gender politics of cross-border marriage. *Economy and Society*, 70, 10-37.
- Kim, M., Yoo, M., Lee, H., & Chung, K. (2006). Dilemmas and choice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wives of vietnam and the case of the Philippines. *Korea Cultural Anthropology*, 39(1), 159-193.
- Kim, N. (2013). *Phenomenological study on immigrant wives' experience of adaptation process: focused on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korean me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T. (2013). The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the conflicts between values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migran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1), 53-76. 5-54.
- Kim, Y. (2007).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 Seoul: Muneum Press.
- Kong, S., & Yang, S. (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101-117.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Seoul, Korea: Kim, Y.
- Lasry, J. S., & Sayegh, L. (1992). *Developing and acculturation scale: a bidimensional model*. In N. Grizenko, L. Sayegh, & P. Migneault (Eds.), *Transcultural issues in child psychiatry*. Montreal: Éditions Douglas.

- Lee, D. (2009). The status of the Japanese immigrant women's adaptation to the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chung-nam province. *Journal of cultural tourism studies*, 11(2), 23-36.
- Lee, E. (2013). The story on the marriage and work of my friend a Vietnamese migrant inter-marriage woman. *Journal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6(3), 109-129.
- Lee, E., & Jun, M. (2013).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5), 124-141.
- Lee, H. (2005). *A study of caregiving experience of caring for a spouse with dementia husband elderly couple in the househo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2013). A qualitative study on marriage migrant women's experiences in the world of life.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 269-277.
- Lee, J. (2011).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food culture of the Korean & Vietnam. *Social Science Discourse and Policy*, 4(2), 67-89.
- Lee, N. (2004). *Phenomenology and hermeneutics: phenomenology of husserl chowolronjeok and heidegger's hermeneutic phenomenolog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ininger, M. (1998). Special research report: dominant culture care (Emic) meanings and practice findings from leininger's theory.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9(2), 45-56.
- Lim, D., & Kim, C. (2011). A Study o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antecedent factors: focusing on social distance, image of foreign residents, and qualifications for being a korea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9(1), 5-55.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son, J. (1999).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Nanam Press.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Survey of married immigrants family and study on long-term support policy*. Seoul, Korea: Seol, D., Lee, H., & Cho, S.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2).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2014). Immigrant women's local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
- Ministry of Justice. (2014). International marriage adaptation program. Retrieved from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Marr.jsp?q_global_menu_id=S_GIM_SUB01.
- Ogbu, J. (1981). Origins of human competence: A cross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2, 413-429.
- Ok, S., Chin, M. & Chung, G. & Kim, J. (2014). Original article : comparisons of family life culture among Korean married families and Korean-Vietnamese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family rituals and valu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2(1), 75-85.
- Park, S. (2008). A study on the change of identity and agency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changing with the social positionality: a case study of Gumi.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4(1), 40-53.
- Park, S. (2011). The study on aspects of acculturation showed in married immigrant women's handwriting.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11, 107-139.
- Ryu, J. (2010).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adjustment strategies for their family life in korea : based on their vietnamese cul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Korea.
- Ryu, J., & Kim, D. (2013). Effects of perception for upward mobility on fertility among foreign wives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2), 45-67.
- Seo, D. (2010). Features and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studies Korea: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focusing on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Migration & Society*, 3(2), 5-32.
- Seong, E. (2009). *A study on inter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o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Y. & Chang, J. (2010). A case study on adaptability factors in family life for 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inter-

- culturalism.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09-122.
- Sim, S. (2009). The position of Vietnamese women and the Korean-Vietnamese multi-culture family. *Vietnam Research*, 9, 25-66.
- Sim, Y. (2012). *Sheet supranational and supra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 society,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Bogo Press.
- Sli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eree Paradigm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Song, B. (2012). *Adaptation strategies for mrriage imigrants' fmily clture in krea through fmily culture in aian cunt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Jeollabuk-do, Korea.
- Statistics Korea. (2013). *Marital status of immigrants*.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 Sung, J. (1996). *Marriage research between Koreans in Chinese women and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gbuk-do, Korea.
- Sung, M., Chin, M., Lee, J., & Lee, S. (2013). Ethnic variations i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of migrant wiv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 62(2), 226-240.
- Tajfel, H., & Turner, J.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Austin and S. Worchel (Ed)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7-14.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 Van de Vijver, F. J. R., Helms-Lorenz, M., & Feltzer, M. J. A. (1999). Acculturation and cognitive performance of migrant children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4, 149-162.
- Van Manen, M. (1990). *Reserching Lived Experience*. New York. Sunny Press.
- Van Oudenhoven, J. P., Willemsma, G., & Prins, K. S. (1996). Integratie and assimilatie marokkanen, surinamers en turken in Nederland.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of maroccans, surinamers and turks in Nederlands). *De Psycholog*, 31, 468-478.
- World Population Review. (2014). *Vietnam population 2014*. Retrieved from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vietnam-population/>.
- Yoo, I. (1997). Vietnamese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and marital relationships, *Asian Culture*. 5, 165-182.

접수 일 : 2014년 07월 15일

심사 일 : 2014년 08월 02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29일